

종교·국적·사상 넘어 함께 기도하고 어울리기를...

단양 광덕사를 가다

충북 단양의 '도락산(道樂山)'은 조선 후기 학자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나뭇대로 길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겐 즐거움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였다.

"힘이 안 들면 기도가 아니다"라며 매일 밤 쏟아지는 커피와 무릎의 피고통을 뒤흔대며 100만배 정진을 마친 해인 스님(광덕사 회주)과 '도를 즐기는 산(道樂山)'의 만남은 역설적이게도 필연(必然)인 듯싶다.

해인 스님이 도락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0년 은사 일타 스님과 함께 중국 낙산 대불을 참배했을 때이다. 당시 낙산은 홍수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던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낙산의 고통은 대중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대불을 조성한 뒤 끝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중생의 고통을 없애 줄 대작불사를 이루겠다고 발원했다. 귀국 후 스님은 '사방이 모두 한 가족이며, 세계는 한승이 꽃(四海一家 世界一花)'이라는 원력을 세우고 대작불사의 제작지를 찾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 끝에 단양 도락산에 이르러 지금의 광덕사 터에 다다랐다.

광덕사 터의 앞날을 바라본 것일까? 1997년 일타 스님은 광덕사에서 법당과 요사채를 지어 한 칠지낸 뒤 "장차 이 곳은 수행도량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의 귀의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해인 스님은 제주 약전사에서 108만배 조성불사를 회향하고, 다시 단양 광덕사를 찾아 100만불전 건립을 구상했다.

2002년 불사에 착수한 광덕사 100만불전은 64만평의 거대한 터전에 연면적 1만579㎡(3000여 평), 지하 2층 지상 4층인 국내 최대 규모의 법당으로 계획됐다. 본격적인 불사는 2003년 10월 4일 금동대불 100만불전 기공식과 함께 시작했다.

2005년 4월 24일 상량식에 이어 봉불식이 있까지 해인 스님의 원력에 수많은 대중들의 신심이 보태져 불사가 이뤄졌다.

드디어 2009년 9월 14일 많은 이들의 염원으로 이룬 4m 높이의 금동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봉안한 백만불전 미타삼존불 봉불식이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산·종상·보성·도견 스님 등 조계종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설경·종진·자승·정관 스님 등 계단위원·분사주지 및 국내외 많은 스님이 5000여 사부대중과 함께 자리해 해인 스님이 이룬 원력을 찬탄하고 회향을 축하했다.

오전 10시 점안식과 함께 시작된 봉불식에는 미타삼존불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친견한 사람들의 감탄으로 법당이 또 한번 가득했다. 스님과 불자들



9월 14일 단양 광덕사에서 백만불전 미타삼존불 봉불식이 거행됐다. 많은 사부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동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봉안되는 모습.

'사해일가 세계일화' 원력... 백만불전 7년만에 봉불식 故 박정희 前 대통령 추모하는 무궁화 동산 조성 예정

모두 표정이 상기돼 있었다.

이에 앞서 봉불식 하루 전날인 13일은 전야제 행사가 진행됐다. 전야제 행사에는 삼귀요계 수계식을 갖고 해의 고승 및 선지식 초청 법문이 이어졌고, 밤 12시에는 대중들의 철야 용맹정진이 있었다.

광덕사 봉불식은 여법하게 진행됐다. 철야정진까지 하며 5000여 넘는 대중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단 순히 불사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으리라. 광덕사는 해인 스님이 종단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스님의 원력만으로 100만배의 정진력에 대중들의 신심이 보태져 불사가 이뤄졌다.

대작 불사가 회향되려면 스님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불사에 거액을 보시하는 불자들이 있지도 않았다. 단지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여러 불자들의 정성이 모여졌을 뿐이었다. 단양 광덕사의 100만불전은 해인 스님의 100만배 원력에 100만 불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더해 이룬 불국정토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고통도 따르는 법이다. 불사가 진행되기까지 결코 원만했던 것은 아니었다. 해인 스님은 봉불식에서 감격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간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스님의 제자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해인 스님이 걱정돼 불사건립은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자청 했고, 스님은 제자들을 믿고 3년간 참선을 할 목적으로 수탁사에 들어갔다.

스님이 참선 정진하던 사이 자문문제가 불거졌다. 많은 빚쟁이들이 몰려들었고, 결국은 스님이 수행하는 산사까지 찾아와 수시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빚쟁이들은 스님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사를 떠나라는 각서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견디다 못한 스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까 고민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여태껏 이뤄

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특히 대작불사를 이루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다. 해인 스님은 다시 발심했다. 스님이 다시 발심하자 놀랍게도 빚쟁이들과의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불사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 당시 해인 스님을 지켜본 주지 일각 스님은 "해인 스님은 고통스러워 하시다 못해 매일 커피를 쏟았다"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야 했다"고 회고했다.

해인 스님은 자신이 부딪혔던 마장도 모두 부처님 뜻이라고 했다. 스님은 "이런 사건은 불사 건립에 돈이 돌지 않아 생긴 일이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은 비단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요, 중생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고 반문했다.

"돈을 주지 못하는 사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받을 돈을 못받아 달라고 채근하는 사람 또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는 해인 스님의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게 했다. 그 정성이 모여 100만불전이 건립됐다. 이러한 마음과 원력의 크기로 비교한다면 어쩌면 광덕사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지도 모른다.

스님은 "100만불전 건립에 그치지 않고 광덕사 주변에 무궁화를 심어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겠다"고



해인 스님은 팔공산 동화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13세에 출가했다. 스님은 군복무를 마친 후 용맹정진을 결심하고 해인사 장경각에서 절을 하기 시작했으며, 1971년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서 백만배 기도 회향을 성취했다. 기도하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고비를 한번은 넘겨야 기도 성취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참선을 하는 이라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는 경지에 들어서야 득력(得力)을 하게 된다. 100만배를 마친 스님은 지극한 신심으로 일체를 망각했을 때, 진정한 도력(道力)이 길러지게 되고 원력(願力)을 세우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깨달았다. 현재 약천사 회주로 지내며, 대불조성을 목적으로 단양 광덕사를 건립 중이다.

밝혔다. 그 이유는 해인 스님이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기 때문이다.

해인 스님은 "육영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총을 대신 맞아 타계하고, 박정희 대통령 또한 총에 맞아 서거한 것이 광장히 애석하다"며 "그의 딸인 박근혜와 이들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마음의 벽, 종교의 벽, 나라, 사상을 다 떠나 모두가 어울려 뛰어놀 수 있는 동산을 조성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세계에 기리 남을 대불을 만들어, 세계인 모두가 한집안 식구처럼 모여 사는 곳을 염원하는 해인 스님. 많은 이들이 함께 행복하고 한 가족처럼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원력이 됐기에 불사가 가능했다. 스님은 100만불전에 108개의 방사를 만들었다. 해인 스님은 "108개국 사람들이 즐겁게 기도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100만불전이 원만히 낙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스님의 바람처럼 세계인 모두가 하나 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런 불사를 기대한다.

이은정 기자 soe84@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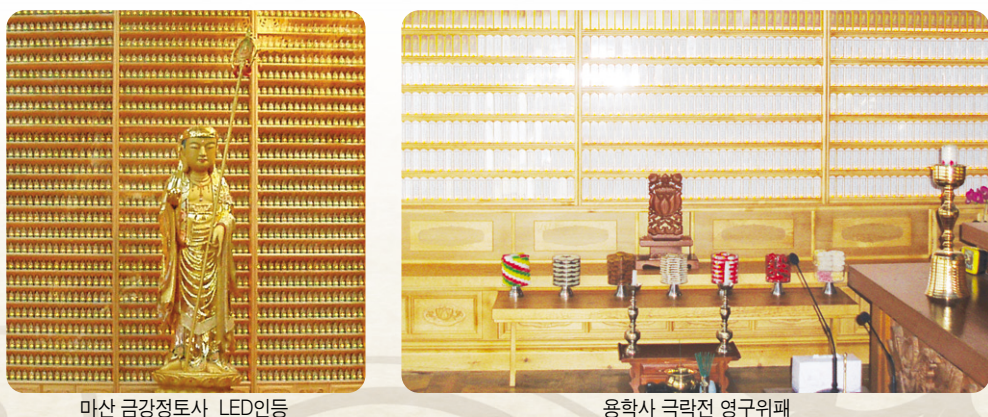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정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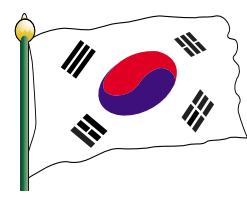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증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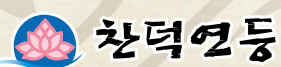
영가등

증등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증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